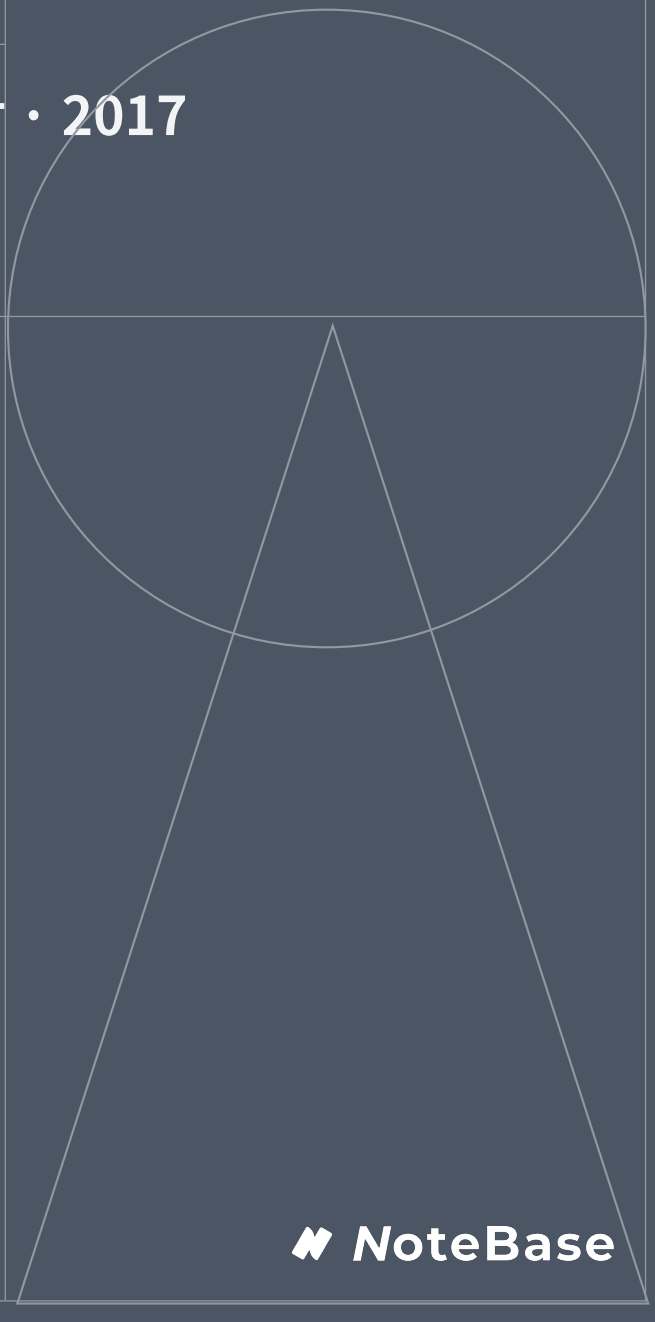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17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17

문 1. 중세시대 대학 발생의 주요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면서 학문적 열기가 고조되었다.

② 십자군 원정 이후 외부 지역으로부터 실용학문이 널리 유입되었다.

③ 대중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조합학교(guild school)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④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법조인, 의사와 같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중세 대학(university)이 어떤 사회적·학문적 배경에서 발생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스콜라 철학의 발달, 십자군 원정에 따른 외부 학문 유입, 도시와 상공업 발달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 증가는 중세 대학 발생의 대표적 배경으로 꼽히는 반면, '조합학교(guild school)'는 대학 자체의 기원과는 성격이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핵심 개념

중세 대학(university)의 어원인 'universitas'는 본래 교사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한 일종의 '조합(길드)'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대학은 학자·학생 집단이 스스로 만든 동업조합(길드)에서 출발한 것이지, '대중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별도의 조합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져 대학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한편 스콜라 철학의 융성으로 학문 탐구 열기가 높아진 점,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아랍·비잔틴 지역의 실용 학문과 고전 문헌이 서유럽에 유입된 점, 중세 후기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법률가·의사 등 전문 직업인에 대한 수요가 커진 점은 모두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성장하게 된 실질적 배경으로 인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스콜라 철학의 발달로 논리적 탐구와 학문적 열기가 고조된 것은 중세 대학 성립의 대표적 배경으로 인정된다.
② O: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외부 지역(아랍·비잔틴 등)의 실용학문과 고전 문헌이 서유럽에 널리 유입되면서 학문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③ X: 조합학교(guild school)라는 별도의 학교가 '대중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것이 대학 발생의 배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세 대학은 대중의 교육 요구에 부응해 만들어진 별개의 조합학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한 조합(길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O: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법조인, 의사와 같은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진 것도 대학 발생을 촉진한 배경으로 인정된다.

오답 포인트

'조합(guild)'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학과 무관한 별개 기관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대학 자체가 교사·학생의 조합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중의 교육적 요구'라는 표현도 함정인데, 중세 대학의 형성은 일반 대중의 요구라기보다 학자·학생 집단 스스로의 결사(자치 조합) 필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세 대학 발생 배경을 묻는 문제에서는 스콜라 철학, 십자군 원정에 따른 학문 유입, 도시·상공업 발달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라는 세 가지 축을 먼저 확인한다. 이후 선지에 '조합학교'나 '길드'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이 대학과 별개로 새롭게 등장한 기관처럼 서술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학 자체의 기원(교사·학생 조합)으로 서술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학(university)의 어원 universitas=교사와 학생의 조합(길드) 그 자체. 대학 발생 3대 배경=스콜라 철학의 발달, 십자군 원정 이후 실용학문 유입, 도시·상공업 발달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 증가.

NoteBase

문 2.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사상가는?

◯ ‘다면적 흥미’의 형성을 중시하였다.
◯ 명료, 연합, 체계, 방법으로 이어지는 수업의 단계를 주장하였다.
◯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도덕적 인격을 갖추는 데 기여하는 ‘교육적인 수업’을 강조하였다.

①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
② 헤르바르트(Herbart)
③ 루소(Rousseau)
④ 듀이(Dewey)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세 가지 특징(다면적 흥미, 명료-연합-체계-방법의 4단계 수업,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적 수업)을 통해 해당 교육사상가를 특정하는 문제이다. 각 진술이 특정 인물의 대표 개념과 정확히 대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헤르바르트(Herbart)는 교육의 목적을 도덕적 품성(강한 도덕적 인격)의 도야에 두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다면적 흥미'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다면적 흥미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경험적·사변적·심미적 흥미와 동정적·사회적·종교적 흥미 등 여러 방면에 걸친 흥미를 고루 발달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수업이 명료(clarity)-연합(association)-체계(system)-방법(method)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후 제자들에 의해 예비-제시-연합-체계-방법의 5단계로 발전하였다. 또한 헤르바르트는 지식 전달 자체에 머무르는 수업과 구분하여, 도덕적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수업을 '교육적 수업(교수)'이라 불렀다. 이는 그가 교육학을 윤리학(교육 목적)과 심리학(교육 방법)에 기초한 학문으로 체계화한 것과 맞닿아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 — X. 고대 로마의 웅변가 양성 교육자로 「웅변가교육론」을 남겼으며, 조기교육과 개인차 고려, 체벌 반대 등을 주장하였다. 다면적 흥미나 명료-연합-체계-방법의 수업 단계와는 관련이 없다.
② 헤르바르트(Herbart) — O. 다면적 흥미의 형성, 명료-연합-체계-방법의 4단계 수업,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적 수업을 모두 주장한 인물이다.
③ 루소(Rousseau) — X.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로 아동의 자연적 성장과 소극교육,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명료-연합-체계-방법과 같은 형식적 수업 단계론과는 무관하다.
④ 듀이(Dewey) — X. 경험 중심·문제해결학습을 강조한 진보주의 교육사상가로, 흥미를 아동의 활동과 연결시키긴 하였으나 '다면적 흥미'나 명료-연합-체계-방법의 단계는 헤르바르트 고유의 개념이다.

오답 포인트

'흥미'라는 단어만 보고 듀이를 고르는 오답이 나올 수 있으나, '다면적 흥미'는 헤르바르트의 고유 용어이고 듀이는 아동의 직접적 경험과 활동에서 비롯되는 흥미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또한 '체계적 수업 단계'라는 표현만 보고 퀸틸리아누스를 떠올리기 쉬우나, 그는 형식적 4단계 수업론을 제시한 바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다면적 흥미', '명료-연합-체계-방법(또는 예비-제시-연합-체계-방법)', '교육적 수업(교수)'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면 헤르바르트로 바로 연결한다. 세 단서 중 하나만 나와도 헤르바르트를 우선 고려하되, 나머지 단서와 상충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헤르바르트 = 다면적 흥미 + 명료·연합·체계·방법(4단계 수업) + 교육적 수업(도덕적 인격 도야가 목적) + 윤리학(목적)·심리학(방법)에 기초한 교육학 체계화.

NoteBase

문 3. 「평생교육법」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 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쟁점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에 명문으로 규정된 네 가지 이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발문이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부정형이므로, 조문에 실제로 규정된 이념 세 개를 지우고 남는 하나를 골라야 한다.

용어 풀이

평생교육의 이념: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가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원칙으로, 「평생교육법」 제4조가 네 개 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핵심 구분

제4조에 규정된 이념(포함) = ①기회 균등 보장, ②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 학습 기초, ③정치적·개인적 편견 선전의 방편으로 이용 금지, ④이수자에 대한 자격·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 부여. / 조문에 없는 표현(제외) =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 존중'. 실용성·유용성을 강조하는 서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4조 이념에는 들어 있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는 제4조 이수자 사회적 대우 조항 그대로이다.
② O —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4조 자발성 조항 그대로이다.
③ O —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4조 정치적 중립 조항 그대로이다.
④ X —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제4조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문에 규정된 이념은 기회 균등, 자발성, 정치적 중립, 이수자 사회적 대우 네 가지이며, '필요와 실용성 존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규정되지 않은 이념.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필요와 실용성 존중'은 학습자 중심·평생학습의 취지와 어울려 보여 맞는 이념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조문에 '명시된' 이념인지를 묻는 것이므로, 취지상 바람직한 서술이라도 제4조에 문언으로 없으면 오답 처리해야 한다. ①을 '학력인정' 문구 때문에 부정형 답으로 잘못 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생교육의 이념 문항은 제4조 네 항(기회 균등 / 자발적 학습 / 정치적 중립 / 이수자 사회적 대우)을 하나의 세트로 외워 두고, 선지에 이 네 개 외의 서술(실용성·효율성·경쟁력 강화 등)이 섞여 있으면 그것이 정답(해당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평생교육법 제4조 이념 4개 = '균등·자발·중립·대우'. 균등(기회 균등 보장) / 자발(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 학습) / 중립(정치적·개인적 편견 선전 금지) / 대우(이수자에 자격·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 여기에 없는 '실용성 존중'이 함정 선지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성인학습 유형은?

◯ 개인이 주변 현실을 지각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방식에 대한 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학습이다.
◯ 기존에 겪은 경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비판적 성찰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본다.
◯ 주장에 대한 논쟁과 증거를 검토하는 담론 과정과 학습에서 습득한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중시한다.

①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②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③ 우연학습(Incidental learning)
④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성인학습 이론 중 어느 개념이 관점의 근본적 변화, 비판적 성찰, 담론을 통한 의미 재구성 과정을 설명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세 진술은 모두 메지로우(Mezirow)의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핵심 정리

전환학습은 개인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온 관점(준거틀)이 더 이상 현실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함을 깨닫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 기존 경험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된 관점으로 옮겨가는 학습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주장·증거를 주고받는 합리적 담론(discourse)이 새로운 관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로 강조되며, 이렇게 형성된 관점은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X: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찾아 계획·실행·평가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관점의 근본적 변화나 비판적 성찰을 필수 요소로 요구하지 않는다.
②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X: 학습이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공동체 속에서 참여를 통해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지각 방식의 극적 변화나 담론을 통한 관점 검증과는 초점이 다르다.
③ 우연학습(Incidental learning) X: 의도하지 않은 활동 중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학습을 가리키며, 제시문처럼 비판적 성찰과 담론을 필수 과정으로 요구하는 체계적 이론이 아니다.
④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 O: 현실 지각 방식의 근본적 변화, 경험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비판적 성찰,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는 담론, 그리고 그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까지 제시문의 모든 요소와 정확히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경험'이라는 단어만 보고 자기주도학습이나 경험학습 계열과 혼동하기 쉽지만, 제시문의 핵심은 단순한 경험 축적이 아니라 기존 관점 자체의 근본적 변화와 그 변화를 검증하는 비판적 성찰·담론 과정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근본적 변화', '비판적 성찰', '담론(논쟁과 증거 검토)'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나오면 전환학습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맥락·공동체·참여가 강조되면 상황학습, 의도치 않은 학습이면 우연학습, 학습자의 자기계획·자기평가가 강조되면 자기주도학습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전환학습(메지로우) = 관점(준거틀)의 근본적 변화 + 비판적 성찰 + 합리적 담론 + 행동으로의 실천, 이 네 요소를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행정 조직의 원리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조직화한다.

① 계층의 원리
② 기능적 분업의 원리
③ 명령 통일의 원리
④ 통솔 한계의 원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교육행정 조직의 편성 원리 중 계층의 원리, 기능적 분업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 한계의 원리를 각각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시문의 핵심어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조직화한다는 부분이다.

핵심 개념

계층의 원리는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여 상하 관계로 수직적으로 배열하는 원리이다. 기능적 분업의 원리는 조직의 업무를 성질과 종류에 따라 수평적으로 나누어 각 구성원이 전문화된 특정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명령 통일의 원리는 조직의 각 구성원이 한 사람의 상급자로부터만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로, 이중 명령에 따른 혼란을 방지한다. 통솔 한계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급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계층의 원리: O.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조직화한다는 제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기능적 분업의 원리: X. 이는 업무를 성질·종류별로 수평적으로 나누는 원리이므로, 권한과 책임에 따른 수직적 조직화라는 제시문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③ 명령 통일의 원리: X. 이는 한 사람의 상급자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지휘 계통의 일원화에 관한 원리로, 직무를 수직적 등급으로 조직화하는 것 자체를 설명하는 원리가 아니다.
④ 통솔 한계의 원리: X. 이는 한 상급자가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수의 한계에 관한 원리로, 권한과 책임에 따른 수직적 조직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시문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조직화'라는 표현을 놓치고 조직 관련 용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선지를 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능적 분업의 원리는 '수평적' 분화, 명령 통일의 원리는 '지휘 계통 일원화', 통솔 한계의 원리는 '피감독자 수의 제한'이라는 각기 다른 초점을 가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수직적' '위계' '상하 관계' '권한과 책임의 등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계층의 원리를, '수평적' '전문화' '업무 분담'이 나오면 기능적 분업의 원리를, '한 사람의 상급자' '지휘 계통 일원화'가 나오면 명령 통일의 원리를, '감독 가능한 부하 수'가 나오면 통솔 한계의 원리를 떠올린다.

암기 포인트

계층=수직(권한·책임 등급), 분업=수평(업무 성질별 분담), 명령 통일=한 명의 상급자, 통솔 한계=감독 가능 인원수로 각 원리의 키워드를 짝지어 암기해 둔다.

NoteBase

문 6.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enchard)의 지도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참여형(participating) - 높은 과업행동과 낮은 관계행동에 적합하다.

② 위임형(delegating) - 낮은 과업행동과 높은 관계행동에 적합하다.

③ 설득형(selling) - 높은 과업행동과 높은 관계행동에 적합하다.

④ 지시형(telling) - 낮은 과업행동과 낮은 관계행동에 적합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에서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는 네 가지 지도성 유형(지시형·설득형·참여형·위임형)이 각각 과업행동과 관계행동의 어느 조합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허시와 블랜차드는 지도자의 행동을 과업행동(지시·통제 중심)과 관계행동(지원·의사소통 중심) 두 축으로 나누고, 부하의 성숙도(능력과 의지)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성장함에 따라 적합한 지도성 유형이 달라진다고 본다. 성숙도가 낮은 순서대로 지시형(telling, S1)은 높은 과업행동과 낮은 관계행동, 설득형(selling, S2)은 높은 과업행동과 높은 관계행동, 참여형(participating, S3)은 낮은 과업행동과 높은 관계행동, 위임형(delegating, S4)은 낮은 과업행동과 낮은 관계행동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참여형(participating) - 높은 과업행동과 낮은 관계행동에 적합하다. → X. 참여형은 낮은 과업행동과 높은 관계행동에 적합한 유형이다. 제시된 조합은 오히려 지시형에 가깝다.
② 위임형(delegating) - 낮은 과업행동과 높은 관계행동에 적합하다. → X. 위임형은 낮은 과업행동과 낮은 관계행동에 적합한 유형이다. 제시된 조합(낮은 과업·높은 관계)은 참여형에 해당한다.
③ 설득형(selling) - 높은 과업행동과 높은 관계행동에 적합하다. → O. 설득형은 부하의 성숙도가 낮은 편에서 중간 단계로 갈 때 적용되는 유형으로, 지도자가 과업 지시와 함께 충분한 설명과 지원을 병행하므로 과업행동과 관계행동이 모두 높은 조합에 해당한다.
④ 지시형(telling) - 낮은 과업행동과 낮은 관계행동에 적합하다. → X. 지시형은 높은 과업행동과 낮은 관계행동에 적합한 유형이다. 제시된 조합(낮은 과업·낮은 관계)은 위임형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네 유형의 이름과 과업·관계 조합을 단순 암기하면 순서가 헷갈리기 쉽다. 성숙도가 낮은 부하부터 지시형(고과업·저관계) → 설득형(고과업·고관계) → 참여형(저과업·고관계) → 위임형(저과업·저관계) 순으로 과업행동은 계속 낮아지고 관계행동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도성 유형과 행동 조합이 짝지어 제시되면, 먼저 부하의 성숙도 순서(낮음→높음: 지시형-설득형-참여형-위임형)를 떠올린 뒤 각 단계에서 과업행동은 지시형·설득형에서 높고 참여형·위임형에서 낮으며, 관계행동은 설득형·참여형에서 높고 지시형·위임형에서 낮다는 규칙으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지시형=고과업·저관계, 설득형=고과업·고관계, 참여형=저과업·고관계, 위임형=저과업·저관계로 순서대로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7. 일제 강점기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20년대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한 후 일본인과 조선인을 함께 교육하였다.

②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조선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③ 일제의 우민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조선인의 보통학교 재학생 수는 증가하였다.

④ 전쟁인력을 확보하고자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학교에서 전시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일제 강점기 네 차례에 걸친 「조선교육령」의 시기 구분과 각 시기의 정책적 특징을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선지는 서로 다른 차수의 조선교육령 시기에 실제로는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기와 사건을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관건이다.

핵심 개념

제1차 조선교육령(1911~1922)은 무단통치기의 우민화 교육으로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단축하고 실업·기초교육 위주로 조선인을 저급 인력으로만 양성하려 하였다. 제2차 조선교육령(1922~1938)은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통치기에 나온 것으로, 겉으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교육 형식을 동일하게 맞춘다고 표방하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늘리고 학교 수를 늘려 조선인의 취학 기회 확대 요구를 무마하려 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조선인 보통학교 재학생 수 자체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족차별 완화가 아니라 늘어나는 교육열을 체제 안으로 흡수하려 한 회유책의 결과였다. 제3차 조선교육령(1938~1943)은 중일전쟁 이후 황국신민화 정책 아래 '내선일체'를 내세워 조선어를 수의(선택) 과목화하고 학교 명칭을 소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 등 일본과 동일하게 바꾼 시기이다. 제4차 조선교육령(1943~1945)은 태평양전쟁 시기 전시 총동원 체제 아래 학교를 군사훈련과 근로 동원의 장으로 만들고 전시준비교육·학도병 동원을 강화한 시기이다. 한편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1941년에 소학교를 고친 것이고,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설립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한 것은 1941년(제3차 조선교육령 이후)의 일이지 1920년대가 아니다. 또한 국민학교 체제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 학교는 형식상 명칭만 통일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함께 교육하는 공학 체제가 전면화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시기와 내용 모두 틀린 진술이다.
②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제3차 조선교육령(1938년 이후) 시기가 아니라 제2차 조선교육령(1922~1938) 시기에 해당한다. 시기를 잘못 짝지은 오답이다.
③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는 일제가 문화통치라는 명분으로 우민화·차별 정책의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보통학교의 취학 기회를 확대하는 척했던 시기로, 실제로 이 시기 조선인의 보통학교 재학생 수는 증가하였다. 정책의 본질(우민화)과 통계상 결과(재학생 수 증가)가 모순되지 않고 함께 성립하는 옳은 진술이다.
④ 전시준비교육과 학도 동원이 본격화된 것은 제4차 조선교육령(1943년 이후) 시기이며, 제1차 조선교육령(1911~1922) 시기는 무단통치기로 전쟁 동원과는 거리가 멀다. 시기를 잘못 짝지은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오답들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다른 차수의 조선교육령 시기'에 잘못 붙여 놓은 형태이다. 국민학교 개칭(1941, 3차 이후), 경성제국대학 설립(1924, 2차), 전시준비교육(1943 이후, 4차)이라는 사실 자체는 맞지만 제시된 시기(1920년대, 3차, 1차)와는 어긋난다. 연도나 '제몇 차'라는 표현만 보고 넘기지 말고 사실과 시기를 짝지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교육령 문제는 먼저 각 차수의 대략적 시기(1차 1911~1922, 2차 1922~1938, 3차 1938~1943, 4차 1943~1945)를 기준선으로 세워 놓고, 선지에 등장하는 사건이 어느 시기의 일인지를 맞대어 본다. '우민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수는 증가했다'처럼 언뜻 모순돼 보이는 진술은 정책의 표면적 명분과 실제 통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옳은 진술일 수 있음을 유의한다.

암기 포인트

1차(무단통치·우민화, 1911~1922) - 2차(문화통치·보통학교 확대·경성제국대학 설립 1924, 1922~1938) - 3차(황국신민화·조선어 수의과목·국민학교 개칭 1941, 1938~1943) - 4차(전시 총동원·전시준비교육·학도 동원, 1943~1945) 순서로 시기와 핵심 사건을 짝지어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8. 다음 내용과 가장 밀접한 것은?

◯ 사회적 자본
◯ 교육의 효과에 대한 갈등론적 접근
◯ 스탠튼-살라자와 돈부시(Stanton-Salazar & Dornbusch)

① 지위획득 모형
② 위스콘신 모형
③ 노동시장 분단론
④ 연줄 모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세 단서(사회적 자본, 교육 효과에 대한 갈등론적 접근, 스탠튼-살라자와 돈부시)가 모두 가리키는 이론을 찾는 인물·이론 매칭 문제이다. 사회이동·지위획득 연구에 등장하는 여러 모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핵심 정리

연줄모형(network model)은 콜만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 개념을 교육 불평등 설명에 적용한 이론이다. 학생이 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제도적 행위자와 맺는 사회적 관계망(연줄)의 양과 질이 정보·자원 접근과 학업성취, 이후의 지위 이동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스탠튼-살라자와 돈부시는 이주 배경·소수 인종 학생이 이러한 제도적 지원 관계망에 접근하는 정도가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대표적 연구자이다. 이는 능력과 노력만으로 지위가 결정된다는 기능주의적 설명을 비판하고, 사회적 자본의 불균등한 분배가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보는 갈등론적 접근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지위획득 모형: 블라우와 던컨이 제시한 모형으로, 아버지의 교육·직업 지위가 자녀의 교육을 거쳐 자녀의 직업 지위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사회이동 연구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 기반하며 사회적 자본이나 스탠튼-살라자와 돈부시의 연구와는 관련이 없다. X
② 위스콘신 모형: 시웰 등이 지위획득 모형에 중요한 타인의 영향, 포부 수준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확장한 모형이다. 개인의 심리적 매개 과정에 초점을 두는 기능주의적·사회심리학적 접근으로, 갈등론적 접근이나 사회적 자본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X
③ 노동시장 분단론: 노동시장이 임금·승진 기회가 좋은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어 교육의 효과가 노동시장 구조 자체에 의해 제한된다고 보는 갈등론적 이론이다. 갈등론적 접근이라는 점은 부합하지만 사회적 자본 개념이나 스탠튼-살라자와 돈부시의 연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X
④ 연줄 모형: 사회적 자본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이 맺는 사회적 관계망(연줄)이 학업성취와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이러한 관계망 접근의 불평등을 통해 기존 능력주의 설명을 비판하는 갈등론적 접근에 해당한다. 스탠튼-살라자와 돈부시는 이 이론을 대표하는 연구자이다. 제시된 세 단서 모두와 부합한다. O

오답 포인트

지위획득 모형과 위스콘신 모형은 모두 사회이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모형이지만 기능주의적 관점에 서 있어 갈등론적 접근이라는 단서와 어긋난다. 노동시장 분단론은 갈등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맞지만 사회적 자본이나 스탠튼-살라자와 돈부시라는 인물 단서와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된 단서가 여러 개일 때는 하나의 단서만으로 성급히 답을 고르지 말고, 모든 단서(핵심 개념어, 관점, 인물명)를 동시에 만족하는 선지를 찾는다. 특히 인물명이 직접 제시된 경우 그 인물이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지위획득 모형=블라우·던컨, 기능주의. 위스콘신 모형=시웰, 지위획득 모형+사회심리적 변인. 노동시장 분단론=1차·2차 노동시장 구조, 갈등론. 연줄 모형=사회적 자본, 스탠튼-살라자와 돈부시, 갈등론적 관계망 접근으로 구분해 암기해 둔다.

NoteBase

문 9. 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육공무원법」상 초·중등 교원의 정년은 60세이다.

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교원에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각각 보장된다.

④ 「교육기본법」상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교원의 신분·권리와 관련된 네 개 법률(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교원노조법, 교육기본법)의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정년 연령, 불체포특권, 노동3권의 인정 범위, 다른 공직 취임의 근거 법형식이 각각 선지로 나뉜다.

용어 풀이

불체포특권: 현행범이 아닌 한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 교원 신분보장 장치.
노동3권: 단결권(노조 결성)·단체교섭권(사용자와 교섭)·단체행동권(쟁의행위).
정년: 법정 연령에 도달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연령 한계.

핵심 구분

교육공무원 정년=62세(60세 아님) / 교원지위법상 불체포특권=현행범 제외+학교장 동의 없이 학원 내 체포 불가 / 교원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만 인정, 단체행동권(쟁의행위)은 금지 / 다른 공직 취임 근거=교육기본법상 '법률'로 정함(대통령령 아님).

선지별 해설

① X: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정년은 62세이다. '60세'는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은 '62세'이다.
② O: 교원지위법 제4조는 교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선지 내용이 조문과 일치한다.
③ X: 교원노조법상 교원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쟁의행위)은 금지된다. '단체행동권이 각각 보장된다'는 틀린 표현 → '단결권·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가 옳다.
④ X: 교육기본법 제14조는 교원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틀린 표현 →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공무원인 교원에게도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된다고 착각하면 걸린다. 헌법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3권이 제한되어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④는 '대통령령'과 '법률'의 미세한 차이를 흘려 읽으면 옳은 것처럼 보인다. ①은 일반 공무원 정년(60세) 감각으로 답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원 관련 옳은 것 찾기 문제는 (1) 정년 62세, (2) 불체포특권 조문 문구, (3)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배제, (4) 다른 공직 취임의 '법률' 근거를 함정 포인트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숫자(60/62)와 법형식(법률/대통령령), 권리 개수(2권/3권)를 표시해 두고 대조하면 빠르게 정오를 가릴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교원 정년=62세 / 교원 불체포특권=현행범 제외·학교장 동의 없이 학원 내 체포 불가 / 교원 노동권=단결권·단체교섭권 O, 단체행동권 X / 다른 공직 취임=교육기본법상 '법률'로 정함.

NoteBase

문 10. 다음은 에치오니(Etzioni)의 조직유형론의 기준과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권력 \ 참여	소외	타산	(㉠)
강제	(㉡)		
(㉢)		(㉣)	
규범			학교

① ㉠: 보상, ㉡: 군대, ㉢: 친밀, ㉣: 종합병원

② ㉠: 헌신, ㉡: 교도소, ㉢: 보상, ㉣: 일반회사

③ ㉠: 몰입, ㉡: 복지기관, ㉢: 통합, ㉣: 종교단체

④ ㉠: 협동, ㉡: 소방서, ㉢: 지원, ㉣: 전문대학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에치오니(Etzioni)의 순응이론(조직유형론)에서 권력의 유형(강제·보상·규범)과 참여(관여)의 유형(소외적·타산적·도덕적) 두 기준을 교차시킨 표를 완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표에서 권력 행은 강제·(ㄷ)·규범 순으로, 참여 열은 소외·타산·(ㄱ)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규범×(ㄱ) 칸의 예시로 학교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이 힌트로부터 (ㄱ)이 어떤 참여 유형인지, 그리고 표에서 비어 있는 강제×소외 칸과 (ㄷ)×타산 칸에 어떤 조직 예시가 들어가는지를 함께 추론해야 한다.

핵심 정리

에치오니는 조직이 구성원을 통제하는 권력의 종류를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규범적 권력 세 가지로 나누고, 구성원이 조직에 관여(참여)하는 태도를 소외적 관여, 타산적 관여, 도덕적(헌신적) 관여 세 가지로 나눈다. 이 두 기준을 곱하면 9개의 조직 유형이 나오는데, 이 중 실제로 안정적이고 널리 나타나는 것은 대각선상의 세 유형, 즉 강제적 권력×소외적 관여(강제조직, 예: 교도소·수용소), 보상적 권력×타산적 관여(공리조직, 예: 일반 회사), 규범적 권력×도덕적 관여(규범조직, 예: 학교·종교단체)이다. 표에서 규범×(ㄱ) 칸에 학교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칸이 바로 규범조직에 해당하고, 따라서 (ㄱ)은 도덕적 관여, 즉 헌신(몰입)이 되어야 한다. 같은 논리로 강제×소외 칸에는 강제조직의 대표 예인 교도소가 들어가고((ㄴ)), 표에서 강제와 규범 사이에 있는 권력 유형 (ㄷ)은 보상적 권력이 되며, 보상×타산 칸에는 공리조직의 대표 예인 일반 회사가 들어간다((ㄹ)).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보상 / 군대 / 친밀 / 종합병원 → X: (ㄱ)은 규범×(ㄱ)=학교 칸에 대응하는 참여 유형이므로 도덕적 관여인 '헌신'이어야 하는데 '보상'은 참여 유형이 아니라 권력 유형의 명칭이므로 틀린 배치이다. (ㄴ)의 '군대'도 강제조직의 예로 쓰일 수는 있으나 이 조합에서 표준 예시는 교도소이고, (ㄷ)의 '친밀'은 에치오니 이론의 권력 유형 명칭이 아니다.
② 헌신 / 교도소 / 보상 / 일반회사 → O: (ㄱ)은 규범×도덕적 관여 칸(학교)에 대응하는 참여 유형이므로 '헌신'이 맞고, (ㄴ)은 강제×소외 칸에 해당하는 대표 예시인 '교도소'가 맞다. (ㄷ)은 강제와 규범 사이의 권력 유형으로 '보상적 권력'이 맞고, (ㄹ)은 보상×타산 칸(공리조직)의 대표 예시인 '일반회사'가 맞다. 네 칸 모두 에치오니의 3×3 대각선 구조(강제-소외, 보상-타산, 규범-헌신)와 정확히 일치한다.
③ 몰입 / 복지기관 / 통합 / 종교단체 → X: '통합'은 에치오니의 권력 유형 명칭이 아니며, '종교단체'는 규범×헌신 칸(학교와 같은 계열)의 예시이지 보상×타산 칸의 예시가 아니다. 보상×타산 칸에는 공리적 성격의 일반 회사가 들어가야 한다.
④ 협동 / 소방서 / 지원 / 전문대학 → X: '지원'은 에치오니의 권력 유형 명칭이 아니며, '전문대학'은 규범조직 계열의 예시이지 보상×타산 칸(공리조직)의 예시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표의 빈칸을 채우는 형식이라 얼핏 임의의 조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치오니 이론에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대각선의 세 조직 유형(강제-소외, 보상-타산, 규범-헌신) 구조를 알아야 풀린다.
①·③·④는 참여 유형 자리에 권력 유형 명칭이나 존재하지 않는 용어(친밀·통합·지원)를 넣어 놓아,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에치오니 이론 체계에 없는 개념이다. 또한 조직 예시를 고를 때 강제조직의 대표 예(교도소)와 공리조직의 대표 예(일반 회사)를 규범조직 계열의 예시(종합병원·종교단체·전문대학 등 헌신을 요구하는 기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에 예시가 하나라도 주어져 있으면(이 문제의 '학교') 그 칸이 속한 행과 열을 먼저 확정한다. 학교는 규범조직의 전형적 예이므로 그 열은 도덕적 관여(헌신)이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대각선 칸(강제-소외, 보상-타산)의 조직 예시를 채워 나간다. 참여 유형 자리에는 반드시 소외적·타산적·도덕적(헌신) 중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 권력 유형 자리에는 강제적·보상적·규범적 중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선지의 용어가 애초에 해당 자리에 맞는 범주인지부터 걸러낸다.

암기 포인트

에치오니의 3대 대각선 조직 유형을 '강제-소외-교도소', '보상-타산-회사', '규범-헌신-학교'로 묶어서 기억해 둔다.

문 11. 본질주의 교육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월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육은 본질주의 사조와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② 미국 정부가 과거에 주도했던 '기초 회귀(Back-to-basics)' 운동은 본질주의 입장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③ 현재의 문화적 위기 속에서 교육을 통하여 새롭고 민주적인 세계질서가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으며, 교재는 학습자의 현재의 관심과는 무관하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본질주의(essentialism) 교육사조의 핵심 주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진보주의·재건주의 등 다른 교육사조의 주장과 혼동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특히 '문화적 위기 속에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한다'는 주장은 본질주의가 아니라 재건주의의 핵심 명제이므로, 이 지점에서 사조 간 혼동을 유발한다.

핵심 개념

본질주의는 인류가 오랜 세월 축적해 온 문화유산 중 가장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본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교육내용은 학습자의 흥미보다 인류 문화유산의 체계와 논리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초 학력과 학문적 엄격성, 수월성을 강조하므로 미국에서 일어난 '기초로 돌아가자(Back-to-basics)' 운동이나 오늘날의 수월성 중심 교육과도 맥이 닿아 있다. 반면 재건주의는 현재의 문화적·사회적 위기를 교육을 통해 극복하고, 교육이 앞장서서 새롭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세계질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조로, 미래지향적이고 사회 개혁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본질주의와 구분된다.

선지별 해설

① 옳다. 본질주의는 학문적 엄격성과 기초 학력의 확실한 습득을 강조하므로, 오늘날 수월성(우수성) 중심 교육과 지향점이 겹치는 면이 있다.

② 옳다. 1950~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기초 회귀(Back-to-basics)' 운동은 진보주의 교육의 아동 중심·경험 중심 접근을 비판하며 기초 교과와 학문적 엄격성으로 돌아가자는 흐름으로, 본질주의 입장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③ 옳지 않다. 현재의 문화적 위기 속에서 교육을 통해 새롭고 민주적인 세계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본질주의가 아니라 재건주의의 핵심 주장이다. 본질주의는 기존에 검증된 문화유산의 전달을 중시할 뿐, 교육을 통한 사회 재건·새로운 세계질서 수립을 목표로 내세우지 않는다.

④ 옳다. 본질주의에서 수업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고, 교재(교육내용)는 학습자의 현재 흥미와 무관하게 인류 문화유산의 체계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본질주의와 재건주의는 둘 다 진보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본질주의는 '과거로부터 검증된 문화유산의 전달'에 초점을 두는 반면, 재건주의는 '교육을 통한 미래 사회의 개혁과 새로운 질서 수립'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③번 선지의 '새롭고 민주적인 세계질서 수립'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재건주의를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문화유산의 전달', '기초 회귀', '수월성', '교사 주도', '학습자 흥미와 무관한 교재 선정'이 나오면 본질주의로 판단하고, '문화적 위기 극복', '새로운 사회질서·세계질서 수립', '교육을 통한 사회 개혁'이 나오면 재건주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본질주의=과거 문화유산 전달, 교사 주도, 기초 회귀. 재건주의=미래 지향, 문화적 위기 극복, 새로운 사회질서 수립. 두 사조를 짝지어 반대 방향으로 암기해 둔다.

NoteBase

문 12. 개인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성 지능은 경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② 창의적인 사람은 모호성을 잘 견디고 과제 집착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

③ 문제를 해결할 때 충동형 학습자는 속도에 주안을 두지만 숙고형 학습자는 정확성에 주안을 둔다.

④ 장독립형 학습자는 사물을 전체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정보 항목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능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능·창의성·인지양식(충동형-숙고형, 장독립형-장의존형) 등 개인차 관련 이론의 핵심 특징을 정확히 구분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장독립형과 장의존형의 지각 방식을 서로 뒤바꿔 제시하는 함정에 유의해야 하는 문항이다.

핵심 개념

결정성 지능은 학교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지능으로 언어 이해, 어휘, 일반 지식 등에 반영되며 경험의 축적에 따라 성인기 이후에도 변화하고 향상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유동성 지능은 선천적·생물학적 기초가 강해 청년기 이후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견디는 힘이 있으며, 문제에 몰입해 끝까지 파고드는 과제 집착력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

인지양식 중 충동형-숙고형은 문제해결에 걸리는 시간과 반응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충동형 학습자는 빠르게 반응하는 대신 오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숙고형 학습자는 반응은 느리지만 정확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인지양식 중 장독립형-장의존형은 배경(장)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가로 구분한다. 장독립형은 주변 배경과 대상을 분리해 분석적으로 지각하므로 사물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파악하는 데 능하다. 반대로 장의존형은 배경과 대상을 분리하지 못하고 전체적·총체적으로 지각하므로 정보 항목들 사이의 관련성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결정성 지능은 경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결정성 지능은 학습과 경험의 누적으로 형성되므로 경험이 쌓일수록 향상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
② 창의적인 사람은 모호성을 잘 견디고 과제 집착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 → 옳은 설명이다. 모호성에 대한 인내와 높은 과제 집착력은 창의적인 사람의 대표적 성격 특성으로 꼽힌다.
③ 문제를 해결할 때 충동형 학습자는 속도에 주안을 두지만 숙고형 학습자는 정확성에 주안을 둔다. → 옳은 설명이다. 충동형은 반응 속도를, 숙고형은 반응의 정확성을 우선시하는 인지양식 특성과 일치한다.
④ 장독립형 학습자는 사물을 전체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정보 항목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능하다. → 틀린 표현이다. 사물을 전체적으로 지각해 정보 항목들 사이의 관련성을 잘 파악하는 쪽은 장의존형 학습자이다. 장독립형 학습자는 배경과 대상을 분리해 분석적·부분적으로 지각하므로 오히려 개별 요소를 따로 떼어 분석하는 데 능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각'과 '장독립형'을 연결한 진술은 서로 뒤바뀐 설명이다 → 올바른 표현: 장의존형 학습자는 사물을 전체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정보 항목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능하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장독립형과 장의존형의 지각 방식을 서로 맞바꾸어 제시한 데 있다. '전체적 지각'과 '관련성 파악에 능함'은 장의존형의 특징인데, 이를 장독립형에 붙여 놓아 언뜻 그럴듯하게 읽힌다. 두 개념의 이름과 특징을 짝지어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지양식 문제가 나오면 먼저 '장독립형=분석적·부분 지각, 배경에 영향 안 받음'과 '장의존형=전체적·총체적 지각, 배경에 영향 받음'이라는 짝을 떠올린 뒤, 지문에서 어느 이름에 어느 특징이 붙어 있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이름과 특징이 뒤바뀌어 있으면 그 선지가 오답이다.

암기 포인트

결정성 지능=경험으로 축적·성인기 이후에도 향상 가능. 창의성=모호성 인내+과제 집착력. 충동형=속도 우선, 숙고형=정확성 우선. 장독립형=분석적·부분 지각(배경 영향 적음), 장의존형=전체적·총체적 지각(배경 영향 큼, 관련성 파악에 능함).

NoteBase

문 13. 성취목표를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로 구분할 때, 숙달목표를 지닌 학습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유능성을 입증하고자 과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② 어려움이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에도 학습을 지속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③ 학습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제를 선택하고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

④ 자신의 능력을 진단하고 향상을 도울 수 있는 피드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성취목표이론에서 숙달목표(학습목표)와 수행목표를 구분하고, 숙달목표를 지닌 학습자가 실제로 보이는 특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숙달목표 학습자는 과제 자체를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수행목표 학습자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하거나 무능함을 감추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차이를 각 선지에 대입해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한다.

핵심 개념

숙달목표(mastery goal)를 지닌 학습자는 과제 자체의 숙달과 향상, 즉 이전보다 더 잘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어려운 과제나 실패에도 학습을 지속하고, 학습기회가 많은 도전적 과제를 선호하며, 자신의 능력을 진단하고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능동적으로 구한다. 반면 수행목표(performance goal)를 지닌 학습자는 타인보다 뛰어나 보이거나 자신의 유능성을 입증(또는 무능함을 은폐)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실패 위험이 있는 과제를 회피하고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즉 '자신의 유능성을 입증하려는 동기'는 숙달목표가 아니라 수행목표의 특징적 지향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자신의 유능성을 입증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수행목표를 지닌 학습자의 특징이다. 숙달목표를 지닌 학습자는 타인에게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 자체를 이해하고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유능성 입증'을 목적으로 노력한다는 설명은 숙달목표 학습자의 특성으로 옳지 않다.
② O — 숙달목표 학습자는 실패나 어려움을 학습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므로, 어려움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지속해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③ O — 숙달목표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기회 자체를 중시하므로, 배울 것이 많은 도전적인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④ O — 숙달목표 학습자는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고 무엇을 더 향상시켜야 하는지 알고자 하므로, 능력을 진단하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유능성을 입증하려는 노력'과 '자신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혼동하면 안 된다. 전자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수행목표의 지향이고, 후자가 숙달목표의 지향이다. 표현이 '계속해서 노력한다', '경향이 있다'처럼 긍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어도, 그 노력의 '목적'이 무엇인지(유능성 입증 vs 능력 향상)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목표 지향의 초점이 '자기 자신의 성장·향상'인지 '타인과 비교한 유능성 입증(또는 무능함 은폐)'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전자면 숙달목표, 후자면 수행목표의 특성이므로, 문제에서 묻는 목표 유형과 선지의 초점이 일치하는지를 대입해 옳고 그름을 가린다.

암기 포인트

숙달목표=향상·이해·도전·진단적 피드백 추구, 수행목표=유능성 입증·타인과 비교·실패 위험 회피로 짝지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14. 심리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MMPI, MBTI는 자기보고식 성격검사이다.

② 웩슬러(Wechsler) 지능검사는 언어성 검사 이외에 동작성 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③ 투사적 성격검사는 구조화되지 않은 모호한 자극 제시를 통해 내적 심리상태를 파악한다.

④ 로르샤흐(Rorschach) 잉크반점검사는 융의 성격유형을 근거로 한 16가지 성격 유형 분류에 활용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대표적인 심리검사의 종류와 각 검사가 무엇을 측정·근거로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기보고식 검사(MMPI, MBTI)와 투사적 검사(로르샤흐)의 차이, 웩슬러 지능검사의 하위 구조, 그리고 로르샤흐 검사가 실제로 어떤 이론에 근거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자기보고식 검사=피검자가 문항에 스스로 응답하는 구조화된 검사(MMPI-다면적 인성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 투사적 검사=모호하고 비구조화된 자극을 제시해 피검자가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무의식적·내적 심리상태를 드러내게 하는 검사(로르샤흐 잉크반점검사, 주제통각검사 등) / 웩슬러 지능검사=언어성 검사와 동작성(수행) 검사로 구성되어 언어적 능력과 비언어적·조작적 능력을 함께 측정한다 / MBTI=융(Jung)의 심리유형론(태도-외향/내향, 기능-감각/직관·사고/감정 등)을 근거로 성격을 유형화한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16가지 성격유형 분류는 MBTI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MMPI(다면적 인성검사)와 MBTI(성격유형검사)는 모두 피검자가 문항에 직접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성격검사에 해당한다 → 옳은 설명이다.
② 웩슬러 지능검사는 언어성 소검사(어휘, 상식 등) 이외에 동작성(수행) 소검사(토막짜기, 차례맞추기 등)를 포함하여 언어적·비언어적 지능을 함께 측정한다 → 옳은 설명이다.
③ 투사적 성격검사는 잉크반점이나 모호한 그림처럼 구조화되지 않은 자극을 제시하여 피검자의 반응을 통해 방어기제로 가려지기 쉬운 내적 심리상태·무의식적 욕구를 파악하는 검사이다 → 옳은 설명이다.
④ 로르샤흐 잉크반점검사는 모호한 잉크반점 자극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로, 이 검사 자체는 융의 성격유형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16가지 성격유형 분류 체계를 갖고 있지도 않다. 융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분류하는 검사는 MBTI이다 → 틀린 표현 '로르샤흐 잉크반점검사는 융의 성격유형을 근거로 한 16가지 성격 유형 분류에 활용된다' → 올바른 표현 '로르샤흐 잉크반점검사는 모호한 잉크반점 자극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여 무의식적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투사적 검사이며, 융의 성격유형론에 근거한 16가지 유형 분류는 MBTI의 특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로르샤흐 검사와 MBTI를 혼동하면 이 문항에서 틀리기 쉽다. '융의 성격유형', '16가지 성격유형 분류'라는 표현은 MBTI의 이론적 근거와 결과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지 로르샤흐 검사의 특징이 아니다.
검사명(로르샤흐)과 그 검사가 근거로 삼는 이론(융의 유형론)이 실제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류를 만든 선지임을 파악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특정 검사명과 함께 이론적 근거·분류 체계가 함께 제시되면, 그 검사명과 근거 이론이 실제로 짝을 이루는 것인지부터 확인한다. 자기보고식 검사(MMPI, MBTI)와 투사적 검사(로르샤흐, 주제통각검사)를 먼저 구분한 뒤, 각 검사의 고유한 이론적 배경과 결과 체계를 검사명에 정확히 매칭시켜 오답 여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기보고식=MMPI·MBTI(구조화된 문항에 스스로 응답) / 투사적=로르샤흐·주제통각검사(비구조화된 모호한 자극으로 무의식 파악) / 웩슬러 지능검사=언어성+동작성 검사 / MBTI=융의 심리유형론 근거, 16가지 성격유형 분류가 MBTI 고유의 특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5.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MOOC 강좌들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품질보증 및 규제에 따라 개발·관리되며 신뢰할 만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② 북미 명문대학 강좌의 온라인 운영 형태를 근간으로 출발하여 대안적 교육형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③ 교수자와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중요시하는 cMOOC와 교수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강의내용 제공에 초점을 맞춘 xMOOC로 구분할 수 있다.

④ 국내에서도 정부 지원하에 K-MOOC를 개발하여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MOOC(대규모 개방형 온라인 강좌)의 등장 배경과 운영 실태, 그리고 cMOOC와 xMOOC라는 두 유형의 구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MOOC가 통일된 국제 품질기준이나 규제 체계 아래 운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MOOC는 다수의 대학과 플랫폼(코세라, 에덱스 등)이 각자의 기준으로 개발·운영하는 온라인 공개강좌로, 참여 대학과 기관마다 강좌의 수준과 운영 방식이 다르고 전 세계 공통의 품질보증·인증·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cMOOC(connectivist MOOC)는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 네트워크 형성과 피드백을 중시하는 형태이고, xMOOC(extension MOOC)는 교수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잘 짜인 강의 콘텐츠 제공에 초점을 둔 형태로, 현재 대다수 MOOC 플랫폼은 xMOOC 방식에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X — MOOC 강좌들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품질보증 및 규제에 따라 개발·관리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실제로는 각 대학·기관·플랫폼이 독자적인 기준으로 강좌를 설계·운영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품질인증이나 규제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O — MOOC는 북미의 명문대학이 자교 강좌를 온라인으로 개방·운영하는 형태에서 출발하였고, 이후 저비용·대규모 학습이 가능한 대안적 교육형태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③ O — cMOOC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피드백, 학습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중시하는 반면, xMOOC는 교수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강의 콘텐츠 제공에 중점을 둔다는 구분은 옳다.
④ O — 한국 정부도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K-MOOC를 개발·지원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세계적으로 공통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MOOC는 개방형 온라인 교육이라는 취지 자체가 다양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이며, 통일된 국제 규제나 인증제도가 없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cMOOC와 xMOOC의 정의를 서로 바꿔서 제시하는 함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OOC 관련 문항에서는 먼저 cMOOC(상호작용·네트워크 중심)와 xMOOC(콘텐츠 제공·교수자 개입 최소화 중심)의 정의를 각각 선지에 대응시켜 뒤바뀌었는지 확인한다. 이어서 '공통된 규제·품질보증 체계 하에 운영된다'는 식의 통일성·표준화를 강조하는 서술이 있으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MOOC=대규모 개방형 온라인 강좌, 통일된 국제 품질보증·규제 체계 없음. cMOOC=상호작용·피드백 중심(connectivist), xMOOC=콘텐츠 제공·교수자 개입 최소화(현재 주류 형태). 국내는 K-MOOC를 정부 지원으로 운영 중이다.

NoteBase

문 1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준참조(norm-referenced) 평가 - 서열화가 쉽고 경쟁 유발에 유리하다.

② 능력참조(ability-referenced) 평가 -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평가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

③ 성장참조(growth-referenced) 평가 - 사전능력수준과 현재능력수준 간의 차이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④ 준거참조(criterion-referenced) 평가 - 학습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교수 · 학습을 개선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평가기준(무엇을 기준으로 성취를 판단하는가)에 따라 규준참조평가, 준거참조평가, 성장참조평가, 능력참조평가로 나뉘는데, 이 문항은 각 평가유형의 정의와 특징이 서로 뒤바뀌어 제시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특히 능력참조평가와 준거참조평가의 특징이 자주 뒤섞여 출제된다.

핵심 개념

규준참조평가=집단 내 상대적 서열(등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평가로, 상대비교이므로 서열화와 경쟁 유발에 유리하다. 준거참조평가=사전에 설정된 절대적 성취기준(목표)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평가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절대기준을 적용하고 학습결과에 대한 직접적 정보를 주어 교수·학습 개선에 활용하기 좋다. 성장참조평가=교육 이전(사전능력수준)과 이후(현재능력수준)의 변화량, 즉 성장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능력참조평가=학생 개인이 가진 능력(잠재력)에 비추어 그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평가로, 학생마다 지닌 능력 수준이 다르므로 개인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규준참조평가는 상대적 서열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학생 간 순위를 매기기 쉽고 상대적 우위를 다투게 되어 경쟁을 유발하는 데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다.
② 능력참조평가는 개인이 지닌 능력 수준에 비추어 그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학생마다 능력 수준이 다른 만큼 적용되는 평가기준도 개별화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평가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능력참조평가가 아니라 준거참조평가의 특징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옳은 설명으로 고치면 "학생 개인의 능력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능력에 비해 최선을 다했는지를 평가한다."
③ 성장참조평가는 사전능력수준과 현재능력수준 간의 차이, 즉 성장의 정도를 참조하여 평가한다는 설명은 정의 그대로 옳다.
④ 준거참조평가는 사전에 설정된 성취기준(목표) 도달 여부를 직접 알려주므로 학습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능력참조평가와 준거참조평가를 혼동하기 쉽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는 절대적·고정된 성취기준을 쓰는 준거참조평가의 특징이지, 학생 개인의 능력 수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능력참조평가의 특징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두 평가 모두 '개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성장참조평가와도 헷갈릴 수 있는데, 성장참조평가는 '변화량(성장)'을, 능력참조평가는 '가진 능력 대비 발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각 평가유형 뒤에 붙은 설명을 읽을 때, 그 설명이 실제로는 다른 평가유형의 정의라는 함정이 없는지를 먼저 의심한다. 특히 '동일한 기준 적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준거참조평가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떠올리고, 능력참조평가 옆에 붙어 있다면 바로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규준참조=상대비교(서열·경쟁), 준거참조=절대기준(동일기준·목표도달·교수학습개선), 성장참조=사전·현재 차이(변화량), 능력참조=개인 능력 대비 발휘 정도(개인별 다른 기준)로 네 유형을 한 단어씩 묶어 암기해 둔다.

NoteBase

문 17.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구조화된 문제상황에서 추론기능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필요로 한다.

② 의과대학에서 전통적인 교육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

③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학습자가 찾아서 해결하는 학습자 중심의 모형이다.

④ 문제해결 과정이 끝난 후 실시되는 평가는 교사에 의해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제중심학습(PBL)의 기원, 특징, 학습자 중심성, 평가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PBL은 전통적 강의식 수업과 달리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평가 방식에서도 전통적 지필시험과 차이를 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문제중심학습은 실제 세계의 비구조화된(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학습자에게 먼저 제시하고, 학습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찾아 학습하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 모형이다. 이는 1960년대 말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암기 위주의 전통적 강의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고, 이후 여러 전문직 교육과 학교 교육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PBL에서 학습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지식을 탐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자이자,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해 서로의 사고 과정을 공유하는 협력적 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에서도 PBL은 결과 중심의 지필시험보다 문제 해결 과정 자체를 중시하여,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수행 과정에 대한 관찰 및 포트폴리오 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PBL은 정답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여러 접근이 가능한 비구조화된 문제상황을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의 추론기능과 스스로 학습 내용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필요로 한다.
② O. PBL은 전통적인 강의식·암기식 의학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처음 개발되어 도입된 교수학습 모형이다.
③ O. PBL은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학습내용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자 중심의 모형이다.
④ X. 문제해결 과정이 끝난 후 실시되는 평가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지필시험 위주가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수행평가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PBL 평가의 특징이다. → 교사에 의한 시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PBL의 기원(의과대학), 문제의 성격(비구조화), 학습자 역할(자기주도적·중심적)까지는 대체로 잘 알고 있어도, 평가 방식을 전통적 지필시험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PBL은 학습 과정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 자기평가·동료평가·수행평가를 중시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PBL 관련 문항에서는 우선 학습의 출발점이 실제적·비구조화된 문제인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탐색하는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평가 방식을 묻는 선지가 나오면 '교사 주도의 지필시험'처럼 전통적 평가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지를 특히 의심해 본다. PBL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암기 포인트

PBL 3요소로 정리한다. 기원=의과대학(전통적 교육 문제점 개선), 문제=비구조화된 실제 문제, 평가=결과 중심 지필시험이 아닌 과정 중심의 자기평가·동료평가·수행평가.

NoteBase

문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의적 특성 평가 방법은?

◯ 스티븐슨(Stephenson)이 개발한 것으로,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 다양한 진술문을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피험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 여러 사람의 분류에서 어떤 공통성, 차이가 있는가를 밝힐 때 혹은 한 개인의 두 장면(예컨대 치료 전, 후)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될 수 있다.

① 관찰법
② 의미분석법
③ Q 분류법(Q sort)
④ 사회성 측정법(Sociometry)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의적 특성(태도, 가치관, 흥미 등) 평가 방법 중 하나를 설명만 보고 식별하는 문제이다. 스티븐슨이 개발했다는 점, 진술문을 분류하는 절차라는 점, 개인 간 혹은 한 개인의 두 시점 간 차이를 비교하는 데 쓰인다는 점이 핵심 단서이다.

핵심 개념

Q 분류법(Q sort)은 스티븐슨이 고안한 방법으로, 다수의 진술문 카드를 피험자에게 주고 특정 기준(예: 자신에게 얼마나 해당하는가)에 따라 정해진 분포(대개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로 분류하게 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개인이 어떤 주제에 대해 갖는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의 구조(자아개념 등)를 파악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분류 결과를 비교해 공통성과 차이를 밝히거나, 한 개인의 치료 전과 후처럼 서로 다른 두 시점의 분류 결과를 비교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의미분석법(SD법)은 어떤 개념에 대한 정서적 의미를 상반된 형용사 쌍(예: 좋다-나쁘다)으로 이루어진 척도에 평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술문을 분류하는 절차가 아니다.
사회성 측정법(소시오메트리)은 집단 구성원 간의 선호·배척 관계를 조사해 대인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진술문 분류와는 무관하다.
관찰법은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진술문 분류나 스티븐슨의 고안과는 관련이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관찰법: X. 행동을 직접 관찰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진술문을 분류하는 절차나 스티븐슨의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의미분석법: X. 상반된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척도에 개념의 의미를 평정하는 방법으로, 진술문 분류 작업이 아니다.
③ Q 분류법(Q sort): O. 스티븐슨이 개발했고, 다양한 진술문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절차를 통해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 구조를 파악하며, 여러 사람 간 비교나 한 개인의 두 시점 간 비교에 사용된다는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사회성 측정법(Sociometry): X.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선호·배척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술문 분류와는 무관하다.

오답 포인트

'진술문을 분류한다'는 표현을 단순히 태도 척도에 응답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의미분석법과 헷갈릴 수 있다. Q 분류법의 핵심은 진술문 카드를 정해진 분포에 맞추어 강제로 분류한다는 절차적 특징과, 개발자가 스티븐슨이라는 점이다. 또한 '두 장면(치료 전, 후) 비교'라는 표현을 대인관계 변화로 오해해 사회성 측정법을 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에 '스티븐슨', '진술문 분류', '정해진 기준(분포)에 따른 분류', '개인 내 두 시점 비교 혹은 개인 간 비교'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면 Q 분류법으로 판단한다. 형용사 쌍 평정이 언급되면 의미분석법, 대인관계 선호·배척이 언급되면 사회성 측정법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Q 분류법(Q sort) = 스티븐슨 개발, 진술문 카드를 정해진 분포로 분류, 주관적 자아개념·인식 구조 파악, 개인 간·시점 간 비교에 활용.

NoteBase

문 19.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율지능지수는 편차지능지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정신연령과 생활연령의 비로 나타낸다.

② 스턴버그(Sternberg)는 분석적 능력, 창의적 능력, 실제적 능력의 세 가지 능력으로 구성된 성공지능을 제안하였다.

③ 정서지능은 개인의 정서적 능력이 학교에서의 성공 및 사회에서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④ 가드너(Gardner)는 지능이 높으면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다고 간주하는 종래의 지능이론을 비판하고 지능이 상호독립적인 여러 지능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지능 개념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 학자별 지능이론을 정확히 구분해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비율지능지수와 편차지능지수의 등장 순서 및 관계, 스턴버그의 삼원지능이론, 정서지능,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각각 구별해야 한다.

핵심 정리

비율지능지수(IQ)는 비네(Binet)와 터먼(Terman)이 처음 사용한 방식으로 정신연령을 생활연령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이 방식은 성인기에는 정신연령의 증가가 둔화되어 연령에 따라 지능지수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웩슬러(Wechsler) 등이 같은 연령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평균 100, 표준편차 15 등)로 지능을 나타내는 편차지능지수를 고안하였다. 즉 비율지능지수가 먼저 나오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차지능지수가 나중에 고안된 것이며, 그 반대가 아니다. 스턴버그는 지능을 분석적 능력, 창의적 능력, 실제적 능력의 세 요소로 구성된 성공지능(삼원지능이론)으로 설명했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조절·활용하는 능력으로, 학업 성취나 사회적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가드너는 단일한 일반지능(g요인)으로 모든 영역의 우수함을 설명하는 종래의 관점을 비판하고,
언어·논리수학·공간·신체운동·음악·대인관계·개인이해 등 서로 독립적인 여러 지능으로 구성된다는 다중지능이론을 주장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순서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편차지능지수가 비율지능지수의 문제점(연령 증가에 따른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정신연령과 생활연령의 비로 나타내는 것은 편차지능지수가 아니라 비율지능지수 자체이다. 틀린 표현 '비율지능지수는 편차지능지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 → 올바른 표현 '편차지능지수는 비율지능지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
② O — 스턴버그는 분석적 능력, 창의적 능력, 실제적 능력의 세 가지로 구성된 성공지능(삼원지능이론)을 제안하였다.
③ O — 정서지능은 개인의 정서적 능력이 학교 및 사회에서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④ O — 가드너는 지능이 높으면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다고 보는 종래의 지능관을 비판하고, 지능이 상호독립적인 여러 지능으로 구성된다는 다중지능이론을 주장했다.

오답 포인트

비율지능지수와 편차지능지수 중 어느 것이 먼저 등장했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인지를 뒤바꾸어 서술하는 함정에 유의한다. '정신연령/생활연령의 비'라는 산출 방식은 편차지능지수가 아니라 비율지능지수의 정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는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처럼 두 개념의 선후 관계가 나오면, 먼저 등장한 개념과 나중에 등장해 문제를 보완한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한다. 지능 관련 개념은 등장 순서(비율지능지수 → 편차지능지수)와 산출 방식(정신연령/생활연령의 비 = 비율지능지수)을 짝지어 기억해 두면 선지의 뒤바뀐 서술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비율지능지수(먼저, 정신연령÷생활연령×100) → 편차지능지수(나중, 비율지능지수의 문제점 해결, 동일 연령 내 상대적 위치). 스턴버그=성공지능(분석적·창의적·실제적). 가드너=다중지능이론(상호독립적 여러 지능, 종래 단일지능관 비판). 정서지능=학교·사회적 성공과 관련.

NoteBase

문 20. 메타인지(meta-cogni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인지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② 시연, 정교화, 조직화와 같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③ 사고에 대한 사고, 인지에 대한 인지로 볼 수 있다.

④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메타인지 개념을 정보처리 전략(인지 전략)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메타인지는 인지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인지 과정을 상위 수준에서 점검·평가·조절하는 기능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인지 전략(시연, 정교화, 조직화)=정보를 부호화하고 저장·인출하기 위해 실제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메타인지=이러한 인지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계획·조절하는 상위의 자기 인식 기능이다.
즉 인지 전략은 '무엇을 하는가'이고 메타인지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가'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자신의 인지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 O. 메타인지의 조절적 측면(계획, 점검, 평가)을 정확히 설명한다.
② 시연, 정교화, 조직화와 같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X. 시연·정교화·조직화는 정보를 저장·기억하기 위한 인지 전략이지 메타인지가 아니다. 메타인지는 이러한 전략을 언제, 왜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상위의 지식과 조절 기능을 말하므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와 동일시할 수 없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인지 과정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점검·조절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③ 사고에 대한 사고, 인지에 대한 인지로 볼 수 있다. → O. 메타인지를 정의할 때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자신의 사고 과정을 대상으로 삼아 다시 생각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다.
④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 O. 메타인지적 지식(자기 자신의 인지 상태에 대한 앎)을 정확히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시연, 정교화, 조직화 같은 구체적 학습 전략 명칭이 등장하면 메타인지와 혼동하기 쉽다. 이 전략들은 정보를 실제로 처리(부호화·기억)하는 '인지 전략'이고, 메타인지는 그 전략의 사용 여부와 효과를 스스로 알고 조절하는 '상위 인지'라는 위계 차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인지 전략(시연, 정교화, 조직화, 심상화 등)의 구체적 명칭이 나열되고 그것을 메타인지의 정의처럼 서술하면 우선 오답으로 의심한다. 반대로 점검, 조절, 계획, 평가, '자신이 아는 것을 아는 것' 같은 표현은 메타인지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표현이다.

암기 포인트

메타인지 = 인지에 대한 인지, 사고에 대한 사고, 자기 인지과정의 점검·조절·계획·평가 기능.
시연·정교화·조직화는 메타인지가 아니라 정보처리를 위한 인지 전략이라는 점을 짝지어 기억해 둔다.

NoteBase